

스페인의 언어 다양성과 언어 정책

조혜진 이화여자대학교 초빙교수

1. 스페인의 언어 다양성과 역사적 배경

스페인이 다민족, 다언어 국가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다. 스페인은 17개 자치주(comunidad autónoma)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으로 지역 민주주의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자치주는 민족적·역사적 이유를 들어 독립의 열망

[그림 1] 스페인의 언어 지도



[표 1] 총인구 대비 공동 공용어 사용 자치주의 인구 비율(INE 2014)

자치주	인구(단위: 명)	총인구 대비(%)
카탈루냐	7,411,869	16.0
발레아레스 제도	1,115,374	2.4
발렌시아	4,963,027	10.7
갈리시아	2,747,207	5.9
바스크	2,166,184	4.7
나바라	636,629	1.4
합계	19,040,290	41.1

을 지속적으로 표출해 오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언어 사용 양상에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 국가적 공용어는 스페인어(español)지만 6개의 자치주가 지역 토착어에 공동 공용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치주나 지역에 따라 상이한 수준의 이중 언어 사용 현상이 발견되는 현실이 전혀 의아하지 않다.

통계에 따르면 공동 공용어인 카탈루냐어, 갈리시아어, 바스크어는 각각 전체 국민의 약 9%, 4%, 1.5%의 모국어이다.¹⁾ 카탈루냐어는 카탈루냐(Cataluña), 발렌시아(Comunidad valenciana), 발레아레스 제도(Islas Baleares)에서 공동 공용어이고,²⁾ 갈리시아어는 갈리시아(Galicia)에서, 바스크어는 바스크(Pais Vasco)와 나바라(Navarra)에서 그러하다. 단, 발렌시아는 서부 카탈루냐어의 방언으로 간주되는 발렌시아어를 고유어로 인식하고 있다.

1) 카탈루냐는 2013년, 갈리시아는 2003년, 바스크는 2011년 통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갈리시아와 바스크 모국어 화자 비율은 미세하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2) 이외에도 아라곤(Aragón) 동부와 무르시아(Murcia) 일부 지역에서도 사용되며, 프랑스의 로세욘(Rosellón), 이탈리아의 알게르(Alguer)에서도 쓰인다. 알게르에서는 공동 공용어이다.

현재 공동 공용어 사용 자치주 주민은 전체 국민의 약 41%에 달한다. 카스티야어와 생성·발달의 역사가 상이한 카탈루냐어, 갈리시아어, 바스크어는 자치주의 정치적 위상 개선과 더불어 공동 공용어로 인정 받았고, 이는 스페인이라는 한 국가의 근본적 특성이 되었다.

공용어인 스페인어는 원래 카스티야(Castilla) 왕국의 말로 카스티야어로 부르기도 하는데, 카스티야 왕국이 15세기 국토 통일의 주체가 되면서 통일 스페인을 대표하는 공용어의 위치에 오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카스티야가 아닌 지역에도 경계를 설정하기 까다로운 여러 지역 토착어 및 방언들이 존재했다.

카스티야어, 갈리시아어, 카탈루냐어는 기원전 3세기 스페인이 로마 제국의 속주가 되며 이식된 라틴어를 공통 근원으로 하여 생성된 로망스어 계통의 언어들이다. 전(前) 로마 시대의 원시 토착어, 켈트어, 게르만어, 아랍어 등의 영향을 받아 각기 다른 양상으로 변화하였지만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며 오랫동안 공존해 왔다. 이외에도 전 세계에서 친족어를 찾을 수 없는 고립어인 바스크어도 존재하고 있어 이러한 언어 다양성이 스페인의 가장 큰 언어·문화적 특징이 되었다. 그러나 15세기에 로망스어 최초의 문법서를 발간한 카스티야어와 달리 카탈루냐어와 갈리시아어, 바스크어는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독자적인 문법을 정립하지 못했다. 특히 20세기 초 ‘하나의 스페인’을 국시(國是)로 내걸었던 독재자 프랑코에 의해 말살 위기에 몰렸던 바스크어는 1968년에 이르러서야 통일 문법을 마련하였을 정도이다.

프랑코 사망(1975) 이후 언어와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는 헌법의 보호 하에 스페인의 정치-언어 지도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으나, 지역의 정체성과 지역 토착어가 동일시되면서 언어 자치권과 교육권을 놓고 중앙 정부와 첨예한 대립 양상으로 표출되는 경우도 있었다.

2. 언어 다양성 장려 정책: 각 자치주의 언어 정책

2.1. 법적 장치와 권리 보장

1978년에 제정된 스페인 헌법은 공용어와 공동 공용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 **3조 1항** 카스티야어는 국가의 공용어인 스페인어이다. 모든 스페인 국민은 그것을 습득할 의무와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 **3조 2항** 스페인의 다른 언어들 또한 각각의 자치주 법규에 합당하게 공용어가 된다.
- **3조 3항** 스페인의 풍요로운 여타 언어들에 특별한 존중과 보호의 대상인 문화유산이다.

물론, 제2조에서는 ‘스페인 헌법은 국민 공통의 불가분한 조국인 스페인이라는 한 국가의 영속적인 단일성에 기초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한편, 6개의 자치주는 자치주 법에 의거하여 다양한 언어 상용화법의 제정과 적용과 관련된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각 자치주 법규의 명칭이다.³⁾

- 바스크: 바스크어 사용 상용화 기본법(1982년)
- 카탈루냐: 카탈루냐 언어 상용화법(1983년), 언어 정책법(1998년)
- 갈리시아: 갈리시아 언어 상용화법(1983년)
- 발렌시아: 발렌시아어의 사용과 교육에 관한 법 (1983년)

3) 각 자치주 언어 정책 관련 누리집 참고

- 발레아레스 제도: 발레아레스 제도의 언어 상용화법(1986년)
- 나바라: 나바라의 바스크어법(1986년), 공공 행정의 바스크어 사용법(2001년)

이렇듯 자치주 법규도 언어 및 방언의 유지·보호라는 측면에서 스페인 헌법과 일치하고 있다.

2.2. 언어 상용화법(Ley de Normalización Lingüística)

2005년부터 카탈루냐, 바스크, 갈리시아의 공공 기관은 공동 공용어인 지역 토착어를 공용어인 카스티야어와 병용하고 있다. 공동 공용어는 유럽연합(EU)의 요청이 있을 때 공용어와 함께 법적으로 동등한 효력을 갖는 것은 물론 자치주 주민들은 유럽연합(EU)에 공동 공용어로 문의가 가능하다. 이때 발생하는 통역이나 번역 비용은 국가가 충당한다. 고유어에 대한 인식 변화와 사용 증대라는 오늘날의 성공적인 결과 이면에는 각 자치주의 적극적인 언어 정책과 중앙 정부와의 치열한 정치적 협상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오늘날 각 자치주 의회가 지역어의 보호와 활성화를 위해 1982~1986년에 ‘언어 상용화법’을 마련한 결과 공용어와 공동 공용어로 작성된 문서들이 법률상으로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는다. 또한 각 ‘언어 상용화법’은 유사한 구조의 규정들을 마련하는 한편 전문에는 오랫동안 소외되었던 이 언어들을 보호해야 할 당위성과 지리적 범위를 명시하였다. 이 규정은 기본적으로 지역 행정, 교육, 대중 매체라는 세 영역에 적용된다.

모든 시민은 행정 기관에서 차별 없이 공용어나 공동 공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은 이중 언어 사용 자치주 법규의 공통 항목이다. 모든 법규는 공용어와 공동 공용어로 공시되며, 각종 행사와 재판에서 두

언어는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카탈루냐는 중앙 행정 기관과 대학의 행정 업무에서 실질적으로 카탈루냐어를 전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바스크의 경우, 통역 서비스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이나 사법 기관에서는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공용어인 카스티야어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해 당사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공동 공용어를 쓸 수 있다.

언어 교육과 관련하여, '언어 상용화법'은 의무 교육 기간 동안 모든 학생이 공용어와 공동 공용어 사용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를 위해 교수자의 이중 언어 사용 능력 구비는 필수 요건이다. 지역 고유어는 학습의 대상이며 도구이기도 한 것이다. 특히 바스크에서는 언어 교육에 따른 학교 유형을 설정해 놓고 있으며 그 선택은 전적으로 학부모의 권한이다.

한편, 각 공동 공용어의 학술적 권한은 각 자치주의 한림원과 주립 연구소에 있으며, 언어 정책의 수행은 보통 언어 정책 총국이 담당한다. 언어 정책이나 언어 상용화법, 기타 언어 관련 분쟁의 경우, 스페인 중앙 정부나 자치주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판단을 맡길 수 있다.

앞에서 밝힌 것처럼 각 공동 공용어 사용 자치주가 언어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과정은 모두 흡사하지만, 정책의 효과적인 활용과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그 이유는 첫째, 각 자치주의 출발 상황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대부분 주민이 토착어를 구사했던 카탈루냐, 갈리시아와 토착어 구사 인구가 주민의 20%에도 미치지 못했던 바스크는 큰 차이가 있다. 또한 토착어가 사회적으로 존중받았던 카탈루냐와 전혀 그렇지 못했던 갈리시아도 출발점이 다르다. 총 인구수와 이민자의 유입 정도도 언어 정책의 적용과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자치주 정부가 표방하는 정치 이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례로, 민족주의 성향

의 정부와 그렇지 않은 정부의 정책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셋째, 각 자치주가 20~30년 동안 행한 정책의 변화 과정과 방법론적 차이가 점점 더 큰 격차를 만들어 냈다. 예를 들어, 매우 적극적으로 자치주 언어 수호에 나선 카탈루냐와 바스크의 경우, 그렇지 않은 갈리시아와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이다. 넷째, 갈리시아어와 카탈루냐어는 카스티야어와 같이 라틴어에서 파생한 친족어이므로 타지인의 습득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계통이 전혀 다른 바스크어는 습득이 어렵고 언어정책 적용 시 발생하는 문제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2.3. 교육 정책

스페인에서 카스티야어가 아닌 언어가 전적으로 사용되는 자치주는 없다. [표 2]는 현재 공동 공용어 채택 자치주의 모국어에 대한 통계 조사 결과로,⁴⁾ 지역별로 스페인어와 공동 공용어의 사용 정도를 가늠하게 하며, 이는 교육 정책의 성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용어인 카스티야어는 공동 공용어와 함께 학교 교육 초기부터 지금까지 학습 대상이다. 그러나 완벽한 지역어 화자 양성을 위해 공동 공용어 사용 시기를 앞당기려는 움직임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교육제도 내에서 다민족 국가인 스페인의 사회·문화적인 차이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경우, 이런 언어 다양성이 결국 학생들의 공용어 구사 능력에 해로운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지역어가 모국어이자 일상어인 학생들은 카스티야어를 학교에서 습득하게 되므로 그 시기가 늦어질수록 이중 언어 사용자로 성장하는 데 무리가 있으며,

4) 자치주 정부의 모국어 관련 통계 자료 참고: 카탈루냐(2008년), 발레아레스 제도(2003년), 갈리시아(2003년), 바스크(2001년), 나바라(2001년), 발렌시아(2007년).

[표 2] 자치주 인구 대비 모국어 비율

자치주	공동공용어	모국어			
		카스티야어	공동공용어	두 언어 모두	기타 언어
카탈루냐	카탈루냐어	55,0%	31,7%	3,8%	9,6%
발렌시아	발렌시아어	60,8%	28,8%	9,5%	0,8%
갈리시아	갈리시아어	30,1%	52,0%	16,3%	1,6%
바스크	바스크어	76,1%	18,8%	5,1%	—
발레아레스 제도	카탈루냐어	47,7%	42,6%	1,8%	7,9%
나바라	바스크어	89,0%	7,0%	2,0%	2,0%

궁극적으로 언어 교육은 ‘언어 상용화법’이 표방하는 바 외에도 외국어 습득과 문화 충돌 방지를 위한 언어 태도의 홍보 등 여러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자치주별 교육 정책을 살펴보면, 먼저 카탈루냐에서는 언어 상용화법 시행 초기부터 매 학년 한 과목에서 카탈루냐어로 수업을 진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다른 자치주와 마찬가지로 상급 학교로 올라갈수록 카스티야어 사용이 증가하며, 직업 교육에서는 지역어 사용 비율이 월등히 낮다. 그러나 이중 언어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카탈루냐어의 사용도 카스티야어와 같은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카탈루냐의 대학에서는 지역어가 행정 업무와 학칙, 각종 규정에서 사용되는 1차 언어이며, 단과 대학이나 과목마다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기본적으로 학생이나 교수 모두 카탈루냐어 구사 능력을 전제로 수업과 시험이 시행된다.

갈리시아의 ‘언어 상용화법’도 토착어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주민 간의 소통과 관계 유지, 갈리시아어 확산을 위한 이해 능력 구비를 목표로

하는 교육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미취학 아동에게도 지역어 학습이 시행되며, 갈리시아어와 카스티야어 수업에 동일한 시간이 배정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역·학교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Santiago de Compostela) 대학교에서는 이미 1970년대 학생 운동의 도구로 갈리시아어를 민족의 상징처럼 사용해 왔다. 이외에도 대학 내의 갈리시아어 상용화를 독려하기 위하여 ‘언어 상용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들도 있다.

타 자치주에 비해 초기 상황이 불리했던 바스크에서는 교육이 언어 정책의 주력 분야였고 현재도 그러하다. 자치권 획득 이후 급증한 이중 언어 사용자 수는 전적으로 교육 제도의 바스크어화가 낳은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전까지 민중 운동의 일환으로 등장한 ‘바스크어 전용 사립 교육 기관’을 제외하고는 바스크어 교육은 전무했다. 1982년 ‘바스크어 상용화 기본법’은 대학 교육 이전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바스크어와 카스티야어로 수업할 권리를 인정했고, 1983년 ‘이중 언어 관련 칙령’에 따라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카스티야어와 바스크어 수업 비중의 학교 모델이 확정되었다.

언어 교육 정책의 일환으로 바스크어와 카스티야어를 공용어로 채택하고, 언어 모델에 따라 학과와 강좌를 구분하고, 이중 언어 사용자인 교수의 수를 지정하고, 행정 직원들의 바스크어 습득을 독려하고, 바스크어 연구소를 세우고, 필수 과목의 65%를 바스크어로도 진행할 것이라는 계획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대학교에서는 수업 대부분이 카스티야어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2012년 바스크 대학(Universidad del País Vasco)의 교원 45%와 직원 58%가 이중 언어 사용자라는 통계가 제시된 바 있어,⁵⁾ 대학 내에서의 상황이 점차 바스크어 전용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사회 언어학적 상황의 변화

먼저, 한 국가의 공용어가 아닌 유럽어 중 화자 수나 사회 언어학적 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입지에 있는 것이 카탈루냐어이다. 카탈루냐어는 독립국인 안도라(Andorra)의 공용어이자 스페인의 공동 공용어라는 법적 지위를 갖추었고 문법 체계 또한 완벽히 정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인구 대부분의 일상어이자 스페인 국민의 약 30%가 사용하는 비교적 다수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20세기 초, 다른 지역어에 비해 일찍 규범화를 실현한 카탈루냐어는 ‘현 사회에 적합한 용례에 의거한 언어의 통일’이라는 목표 아래 기존 방언들을 고려하여 카탈루냐어 사용 지역을 초월한 공통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 공통 규칙을 발렌시아어에도 적용하려 하였으나, 이를 카탈루냐어의 방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독립 언어로 간주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정치적인 해석과 맞물려 끊임없이 논쟁을 야기하여 오늘날까지도 완벽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1977년 자치주 법규를 통해 카탈루냐어가 고유어임을 선언한 후, 1983년 자치주 의회는 카탈루냐어와 카스티야어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하는 ‘언어 상용화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안은 자치주 주민의 언어 습득 의무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카탈루냐어 습득 없이 지역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후 더 적극적인 언어 정책으로 자치주 의회와 공공 기관의 각종 회의, 기관들의 행정 업무,

5) 엘에코노미스타. 스페인의 경제 일간지 인터넷판 (2012년 6월 22일)

<http://ecodiario.economista.es/espana/noticias/4063484/06/12/La-Universidad-del-Pais-Vasco-regulara-el-uso-del-euskara-fuera-de-clase.html#.Kku8v3Zm9jXHPjm>

공식 행사 등에서 항상 카탈루냐어가 사용된 결과, 각종 고지(告知)와 결과 보고 또한 카탈루냐어로 공시된다. 이러한 상황은 1998년 공포된 ‘개정 언어 상용화법’의 실행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공공기관에서 카탈루냐어만을 사용할 날이 머지않았음이 예견된다. 더욱이 카탈루냐는 2006년 자치주 법규 개정으로 국가(nation)의 지위를 인정받았고, 2014년 11월 9일 법적 효력은 없지만 분리 독립 여부를 묻는 카탈루냐 국민 총 투표에서 주민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 낸 상황이다.

둘째로, 20세기까지도 완벽한 문자화를 이루지 못했던 바스크어는 고립된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이베리아 반도의 원시 언어 중 하나를 보존할 수 있었던 반면 내부적으로 상이한 다수의 방언을 양산했을 뿐더러 주민의 20%만이 실질적인 초기 화자였기 때문에 출발점부터 불리했다. 바스크어는 문학적 전통이 없고, 프랑코 독재에 대한 투쟁이나 정치적인 도구로서 존재했으므로 그 발전이나 정착 과정이 다른 언어와 매우 다르다. 또한 친족어가 없는 바스크어의 특수성은 타 지역 출신 사람들이 바스크어를 습득하려면 긴 시간과 열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언어 정책의 기본 목표는 바스크어 교육으로 화자를 증가시키는 데 있었다.

오늘날 바스크 자치주는 언어 교육과 지역민 간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바스크어 공통 규범에 현대의 언어 상황이 반영된 ‘공통 바스크어’를 1971년부터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바스크어 전용 사립 교육 기관’이 등장하며 지역 고유어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1920~1930년대에 시작된 규범화는 1979년 자치주 법규의 승인 이후 본격화되었으며, ‘공통 바스크어’를 출발점으로 바스크어 통일 사전, 문법, 바스크어 언어 지도 편찬 작업 등이 병행되고 있다. 이후 입지를 굳

힌 바스크어는 대중 의식의 폭넓은 변화를 이끌어 냈는데, 여기에는 ‘바스크어 전용 사립 교육 기관’이 중추 역할을 담당했으며, 오늘날에는 공교육 시스템 전반에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자치주 인구의 약 19%가 완벽한 바스크어 화자이며,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지만 학생 대부분이 교육 제도 내에서 바스크어를 습득하는 이중 언어 화자이다. 바스크어 자격 시험 통과자만이 공교육 기관의 교사가 될 수 있다는 조건이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타 지역에 비해 경제적으로 빈곤했던 갈리시아는 토착어에 대한 의식이 카스티야어에 미치지 못하여 공공 기관에서는 여전히 카스티야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는 제조업과 기타 생산업 위주로 사회가 형성된 카탈루냐와 큰 대조를 이룬다.

정자법과 어휘 규정, 한림원 사전은 각각 1982, 1997년에 빛을 보았으나, 공식적인 통일 문법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카스티야어에 가까운 기존의 표준형 대신 포르투갈어와 유사한 형태의 선택을 주장하는 ‘루시타니아’⁶⁾ 지지자들 때문이다. 이들은 포르투갈어와 흡사한 언어형 혹은 그 방언을 선택함으로써 세계적으로 다수의 언어가 되길 희망하는 것이다. 그러나 갈리시아어 방언들은 상이한 정도가 미미하므로 전망이 비관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2003년 개정 문법이 제시된 상태다.

갈리시아어 화자들의 약 50%가 글쓰기를 포함하여 갈리시아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고, 자치주 주민 대부분이 적극적 또는 수동적 화자이다.

6) 이베리아 반도가 로마 제국의 일부였을 당시 갈리시아-포르투갈 지역을 아우르던 행정 구역의 명칭.

사회 통념상 카스티야어보다 하위의 언어로 간주되어 왔다 하더라도 최근 삼십여 년간의 갈리시아어 상용화 정책과 교육의 결과로 청년층의 갈리시아어 사용이 늘고 있으므로 그 미래는 어둡지 않다.

4. 다언어 국가로서 스페인의 전망과 과제

이제까지 살펴본 바로 미루어 보아 스페인의 공동 공용어인 카탈루냐어, 바스크어, 갈리시아어는 자치주 정부의 적극적인 언어 정책과 언어를 문화유산으로 간주하는 변화된 의식 덕분에 지금과 같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세계 4대 언어 중 하나인 스페인어는 강제성을 띠지 않아도 습득할 수밖에 없는 공용어의 위치를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제 스페인의 언어 상황은 공용어와 지역 고유어 간의 알력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분리 독립을 추구하는 카탈루냐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여러 조건이 과거와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민족이나 역사, 정치 같은 집단적인 원인보다는 출산율의 저하, 쉽고 빨라진 지역 간 이동, 다양해진 대중매체 등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범세계적이면서도 개인적인 요소들이 주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이밖에도 고른 언어 습득이 가능해진 무상 교육, 이중 언어를 넘어 영어를 포함한 삼중 언어 사용을 요구하는 글로벌 시대의 도래, 인터넷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범람, 더욱 다양해진 외국인 관광객과 라틴 아메리카 출신 이민자들의 증가 등 장차 스페인 지역어들의 연구에서 고려해야 하는 조건들은 수적으로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상관성도 매우 복잡해졌다. 따라서 위의 다양한 변

인을 고려한 다각적이고 광범한 방향으로 언어 정책의 결정과 실행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참고문헌

갈리시아 자치주정부. www.xunta.es

바스크 자치주정부 언어 정책과 현황. www1.euskadi.net/euskara_lingua

스페인 국립 통계협회. www.ine.es

카탈루냐 자치주정부. www.gencat.net

카탈루냐 자치주정부 통계협회. www.idescat.net

Moreno Fernández, F.(2005), *Historia social de las lenguas de España*, Barcelona: Ariel.

Moreno y J. Moreno Fernández(2004), Percepción de las variedades lingüísticas de España por parte de hablantes de Madrid, *Lingüística Española Actual*, XXVI/I, 1-48.

Siguán, M.(1999), *Conocimiento y uso de las lenguas de España, Madrid: Centro de Investigaciones Sociológicas.*

Urrutia Cárdenas, H. y T. Fernández Ullóa(2005), *La educación plurilingüe en España y América*, Madrid: Dykinson.

Zalbide, M.(1999), Normalización lingüística y escolaridad: Un informe desde la sala de máquinas, *RIEV*, San Sebastián.